



보 도 자 료

보도	2019.12.5.(목) 14:30부터	배포	2019.12.5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 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35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5)		이 지 현 사무관 (02-2100-2993) 권 진 웅 사무관 (02-2100-2983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6)		나 해 영 사무관 (02-2100-2652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양 재 훈 사무관 (02-2100-2661)
	금감원 건전성감독조정팀 부국장 김 동 현(02-3145-5146)		김 성 하 선임 (02-3145-5148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이 상 헌 팀장 (02-3145-7617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이 호 진 팀장 (02-3145-7447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(02-3145-6770)		이 종 오 팀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정 신 동(02-3145-8170)		이 장 훈 팀장 (02-3145-8190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민 봉 기 부국장 (02-3145-6702)

제 목 : 「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 개최

- ◆ **금융위, 기재부, 한국은행, 금감원, 예보는 12월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,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져(채무보증 28.1+대출 71.8)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**
- ▶ 지난 5월,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논의 이후, 유관기관의 현장 검사 등을 토대로 **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**
- ▶ **채무보증을 빠른 속도로 늘려온 증권사 및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관리하고 자본적정성 규제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**
- ▶ **부동산PF 대출이 통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하여, 종합 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**
- ▶ **잠재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는 주요 금융회사 및 사업장을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고 리스크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**

- ◆ 또한, 금번 협의회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**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**을 점검하고, **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**에 대하여 논의
- ◆ **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회사의 **수익추구**(search-for-yield)가 심화되고 있어 **고위험 자산 투자**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**유관기관이 함께 상황**을 진단하고 **잠재 위험**에 대비하는 **정책적 노력**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

1 회의 개요

- '19.12.5.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「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금일 협의회에서는 ①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②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, ③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

【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】

- 일시/장소 : '19.12.5(목) 14:30 ~ 15:3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
 - (금융위) 부위원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자문관, 자본시장국장, 금융산업국장, 금융정책과장, 금융시장분석과장 등
 - (금감원) 부원장, 거시건전성감독국장, 여신금융감독국장, 저축은행감독국장 등
 - (한은) 금융안정국장 (기재부) 자금시장과장 (예보) 부사장
 - 금융연구원·보험연구원·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

2 모두발언 주요내용

-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 -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 (serch-for-yield)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,
 - 국내외 금융회사,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- 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,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,
 -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
[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]

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주요 과제

1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련 건전성 강화

-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리 규율 도입 (증권사 및 여전사)
-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(증권사) 및 총당금 적립 실시(여전사)
- 채무보증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(증권사 및 여전사)

2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 강화

- 부동산PF 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 개선 (종합금융투자사업자)
-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(증권사, 여전사, 저축은행)

3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

- 관찰대상 금융회사 및 사업장 선별 →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
-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→ 복원력,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추가 제도개선
- 금융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져 공시 강화

-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,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(대출, 채무보증)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,
 - 특히,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高위험-高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.
- 이에 반해,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, 잠재리스크를 평가·관리·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□ 이러한 배경에서 「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」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①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하여,

- 증권사·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
-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

②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,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

③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

[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]

□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,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,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*, 하이일드 채권**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,

* 레버리지론 : 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

** 하이일드 채권 : 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

○ 다만,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*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* '19.6월말 기준,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.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

□ 그러나,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,

○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[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]

- 아울러,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.

* IMF GFSR(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, '19.10월) :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·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→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

-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, 현재로서는 국·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*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,

* '19.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.8조원이며, 이 중 국·공채,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.6%를 차지

-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, 펀드별 운용 자산 현황,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.

-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, '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.

※ 별첨1 : 부위원장 모두발언

※ 별첨2 : 「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